

“만해 스님에겐 감옥이 곧 선방이었다”

선학원, 6월 15일 정법사서 ‘만해와 민족독립운동’ 학술문화제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15일 서울 정법사에서 만해 스님 열반 71주년 기념 만해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문화제에서는 “만해와 민족 독립운동”을 주제로 만해 스님의 종교활동과 독립운동, 문학 및 저술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먼저 강은에 서울대 연구원은 ‘만해 한 용운의 행적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을 통해 “만해 스님은 진속불이의 대승불교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성숙을 넘나든 종교인”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그동안 독립운동과 문화적 소양으로 승려로서의 모습이 부각되지 못했지만 그 정체성은 철저한 불교 수행자”라고 말했다.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는 만해 스님이 1927년 설립된 범민족적 단일독립당 ‘신간회’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을 조명했다.

만해 스님 수행자 면모 부각

민족 방항제시로 문학 활용

불교대전 통해 사상 계승도 되짚어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은 경성지회장 사임 후 불교청년운동에 집중해 조선불교 정체성 정립에 앞장 섰다”며 “불교가 먼저 개혁해야만 조선인의 정신과 생활을 개혁할 수 있다는 시대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6월 15일 세미나서 강은에 연구원의 발표에 김영섭 동국대교수가 논평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은 불교운동의 연장선으로 사찰령과 그 시행령으로 생겨난 사법 폐지인 식민불교 철폐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해 스님의 민족독립에 대한 상상력이 매개로 문학으로 표현됐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만해 스님의 독립사상의 특징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자유와 평등 민족자존성의 회복이란 과제에도 3·1운동이 실패하자 만해 스님은 방항제시의 의도로서 문학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만해 스님의 저서 <불교대전>과

현공 스님의 저서 <불교대전성>을 대조하며 현공 스님이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따르면 <불교대전성>은 <불교대전>에 비해 인용횟수가 300회 가량 늘었으나 그 구성과 경향이 같다. 양 교수는 “두 저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불전은 <화엄경>, <열반경>, <법구경> 순”이라며 “<대전>과 <성전>은 현재적 불교성전으로서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원은 만해 스님의 기일인 6월 29일 만해문학상 시상과 추모 다례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대승기신론> 논쟁 살핀다

금강대·런민대·도요대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불교사 속에서의 대승기신론관의 수용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學)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 및 일본 도요대학(東洋大學)과 공동으로 6월 19~20일 부여 백제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제4회 한중일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회가 시작된다. 학술대회는 △장원량 런민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에 대한 종말의 관점-종말의 교판설을 중심으로’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기신론과 기신론 주석서의 아리아식관’ △아부키 아쓰시 도요대 교수의 ‘초기 선종과 대승기신론’ △장위애송 런민대 교수의 ‘하서담광과 당역 대승기신론’ △진케이도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의 ‘장방민의 대승기신론 진위에 대하여’ △리우청오 우 중앙민주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에 대한 인순의 관점-기신론과 부남불교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논평은 이케다 마사노

6월 19~20일, 부여 백제역사관에서 ‘대승기신론’ 전제 및 수용과정 조명

리 금강대 교수, 간노 히로시 소가대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 박보람 동국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김영진 동국대 박사

리 금강대 교수, 간노 히로시 소가대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 박보람 동국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김영진 동국대 박사가 맡는다. 둘째 날은 차상엽 금강대 교수의 사회 하에 △이시이 고세이 고마자와대 교수의 ‘대승기신론과 진제삼장을 연결하는 불성론’ △리찌지에 고마자와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의 진여설 일고찰’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대승기신론 연기에 대한 비판적 독해’ △오다 아키히로 오모타리대 교수의 ‘인중설과 인중유과의 차이-기신론 이해의 중심점’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자로 김성철 금강대 교수, 이상민 고려대 교수, 장진영 금강대 교수, 박창환 금강대 박사가 각각 맡는다. 권탄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국내외의 관련 전문 학자들의 성과를 함께 나누면서 대승기신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41)731-3611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화엄사서 여름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7월 10~11일 구례 화엄사에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소통과 화합에 대한 불교적 모색-화엄사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리승재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의 ‘화엄사 석경의 문화적 가치’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 후기 화엄사의 불교적 위상’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유평화 성균관대 교수와 화엄사 승가대학장 종국 스님의 ‘화엄사상과 소통’ 발제 후 토론이 이어진다. 최종남 불교학연구회장은 “워크숍에서 소통과 화합에 대한 불교적 대안이 도출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1일에는 지리산 연곡사와 쌍계사 답사가 이어진다. (031)980-7796 노덕현 기자

제2회 총지학술상에 박재은·김다현·이영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는 6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성북구 삼선동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교육장에서 제2회 총지학술상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총지학술상에 선정된 논문은 모두 3편으로, 불교 수행 이론 논문 1편과 명상상담 기법을 사용한 사례연구 2편이다. 먼저 불교수행 이론 논문은 사선정의 핵심 요소인 우뻐가가 선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이 연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논문 준비중인 박재은 선생이 연구했다. 2편의 사례연구 논문은 가족갈등 때문에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기 자매를 대상으로 명상상담기법을 토대로 한 가족치료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연구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내러티브연구이다. 전자는 이영순 박사가 후자는 김다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자가 각각 연구하였다. 이영순 박사는 직장생활과 대학재학 중인 자매가 겪는 우울정서를 가족상담을 통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가족치료인데, 기존의 가족치료와 차별화 되는 것은 명상상담 기법 가운데 고집별도 명상상담모형을 적용한 점이다. 20회기의 상담을 통해 자매의 우울정서의 개선과 가족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논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연구자는 명상상담의 영역확장이란 의미를 부여하며, 이후 가족치료와의 통합적 명상상담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다현 선생은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내러티브 방법론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뢰를 받고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는 참여자의 삶에 대한 상세한 생활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텍스트를 쓰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것에 명상상담기법 가운데 영성관법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고, 직면하면서 문제로 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내러티브 방법이 명상상담기법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02)2232-5364 노덕현 기자

진흥원, 제13회 대원상 후보 공모

출·재가 2개분야 접수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2015년 제1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에 대하여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곳) 이내를 시상한다.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내용(주제 및 소재)의 텍스트·이미지 콘텐츠 분야와 오디오·영상 콘텐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한편, 대원상(大圓賞)은 고(故) 대원장 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포교대상·콘텐츠 대상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02)719-2606 정혜숙 기자

갑사 소조삼세불상 복장서 고려 정보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6월 10일 공주 갑사(주지 화봉) 대웅전의 소조관음보살입상 복장을 정밀조사한 결과 복장내에서 후령통, 발원문 및 많은 경전과 다라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후 후령통은 납입 당시의 경전을 원형으로 감싼 형태로 후령통 주변에는 여러 경전과 다라니가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전 중에서는 1387년에 필사한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1352년에 개관된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8-10, 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3(고려후기) 등 고려시대 주요 경전이 발견됐다. 특히 보살상 목부분에는 묘법연화경 권1-3 1책이 동글게 말린 상태로 나왔다. 이처럼 갑사 보살상 복장 조사는 기존 복장 조사에서 볼 수 없는 복장물이 납입상태와 위치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6월 17일 보성 개흥사지 2차 시·발굴조사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개흥사지는 지난 2013년 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청동소탑과 ‘개흥사(開興寺) 銘’ 기와와 소조불상 등의 유물과 용이 조각된 계단 소매들과 층단식 대형 석축 등으로 이루어진 산지가 람입이 확인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속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배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배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론의 및 책자 신 및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